

2018년 12월 30일 오후 12시 30분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2018년 마지막 주일)

인도: 원대연

열린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
Assemble in God's Name

*는 일어남.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Please rise as you are able.

입례송 Prelude “주께 와 엎드려”

다같이

비음의 기도 Prayer in Silence

다같이

마음을 여는 찬송* Hymn “항상 진실케”

다같이

새길의 기도* Saegil's Prayer

우리는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기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하고 섬기겠습니다. 또한 반복과
분열로 가득 찬 사회에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도록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함께 드리는 기도 Prayer

다같이

말씀 나눔
Proclaiming the Word

오늘의 말씀 Scripture Reading 마태 3:5-10; 누가 3:7-14 인도자

말씀 나눔 Sermon “진정한 회개” 박소영, 김경원, 김은숙

헌금과 성찬
Offering and Communion

헌금 찬송 Hymn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헌금함은 예배실 종양 출입구 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

강이삭

성찬 묵상 Meditation

김영주

성찬 식탁으로의 초대 Invitation to the Table

박원일

떡과 잔을 나눔 Sharing of the Bread and Cup

강이삭, 김영주

주기도문 Lord's Prayer

다같이

파송
Go in Peace

파송 찬송* Hymn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
Let there be peace on earth

다같이

축도* Benediction

박소영

다음 주 공동 성서 읽기: 사사기 6:22-27; 시편 8; 갈라디아 4:4-7/빌립보 2:5-11; 누가 2:15-21

[오늘의 말씀] 마태 3:5-10⁵ 그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⁶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 강에서 그에게 c 세례를 받았다.(c 또는 ‘침례’) ⁷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c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니?(c 또는 ‘침례’) ⁸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⁹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¹⁰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누가 3:7-14 ⁷ 요한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니? ⁸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⁹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¹⁰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¹¹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웃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¹² 세리들도 b) 침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b. 또는 ‘침례’) ¹³ 요한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정해 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¹⁴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을 하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해라.

[주간 묵상] 누가 2:15-21¹⁵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¹⁶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¹⁷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다. ¹⁸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¹⁹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 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²⁰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의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²¹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려준 이름이다.

새길교회는 개인주의적/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진정한 예수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목회자/평신도 구분 없이 함께 질문하고 생각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 Community Outreach Ministry

1. Burbank Temporary Aid Center(BTAC) : 매월 첫째 토요일
2. Family Promise : 분기 별 1회
3. Project Mercy (Tijuana Home Build) : 연 2회 (4월, 10월)
4. 기독교 윤리 실천 연대 ‘사랑의 봉 공장’ : 재정지원
5. Doctors without Borders : 재정지원
6. Foster Family program (한인 가정 상담소) : 재정지원
7.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 재정지원
8. Life Care Center (상담) : 수잔정, 오정열, 박소영

☞ 지난 주 통계

출석: 성인 32 명, 어린이 8 명

헌금 통계: \$3,020

☞ 2019년 1월 예배 위원

	설 교	인 도 자	헌 금 기 도	Meditation	친 교 위 원
06	박 원 일	원 대 연	김 해 경	길 한 종	변 선 경
13	원 대 연	박 소 영	김 영 주	길 이 영	추 윤 미
20	박 소 영	원 대 연	김 해 경	길 한 종	박 현 숙
27	박 원 일	원 대 연	김 영 주	길 이 영	길 이 영

☞ 교회 소식 (Church Bulletin)

1.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몸이 아프시거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식사는 김진숙 권사님, 황인명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4. 매주 오전 11:00-12:00 독서토론 모임을 합니다 (마커스 보그의 <기독교의 심장>).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 오늘 예배 후에 연말 가족오락회가 있습니다.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도네이션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광섭, 오정열).
6. 최미선 전도사님은 한 달 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12/28-1/20).
7. 다음 주 예배 후에 2019년 첫 정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2018년(C 해) 12월 30일 제12권 534호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새 길 교 회

SAEGIL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221 S. 6th St., Burbank, CA 91501

새길 교회: www.saegilchristian.org

Podcast: <http://www.podbbang.com/ch/8058>

E-Mail: team@saegilchristian.org / Tel: 818-293-5363